

3월 12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3월 12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 이틀째 상승 [DOW: 6,930.40pt (+ 0.06%)]	개장 초 씨티그룹 호재가 이틀 연속 효과를 발휘하면서 다우 지수가 7,000선을 상회하는 등 랠리를 이어가던 주요 지수는 오후들어 점차 모멘텀을 상실하면서 하락권으로 밀려났음. 전날의 랠리가 `대폭락` 이후의 경미한 상승이라는 인식 속에 금융위기와 경기후퇴에 대한 불안감이 지수를 끌어내렸음. 그러나 주요 지수는 장 마감을 한 시간 남짓 남겨두고 반등에 성공, 상승세를 지켜냈음.
슈퍼추경에 채권시장 불안감 증폭	정부와 여당이 30조원 규모의 '슈퍼추경' 추진 방침을 정하자 채권시장에 미칠 충격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추가경정예산으로 올해 신규 발행될 국고채 물량만 60조원에 달할 전망이어서, 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국고채 금리는 물론 회사채 금리의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채권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 시장에선 발권기관인 한국은행이 나서 국채를 사들임으로써 완충 역할을 할 것이란 데 기대를 걸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어 시장의 불안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
자산운용사 급증...10년 만에 3배 육박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사와 외국계를 모두 합친 자산운용사는 작년 말 현재 63개(국내사 43개, 외국계 20개)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2개의 3배에 육박. 자산운용사는 2000년에 처음으로 40개, 2007년에 50개를 넘었음.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가 16개에서 30개로, 증권사가 53개에서 61개로 증가한 것보다 훨씬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셈임.
4대그룹 대졸 1만1,700명 채용전망	삼성 현대, 기아차, LG, SK 등 4대 그룹의 올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 규모가 1만1,700명에 달할 전망. 11일 매일경제신문이 4대 그룹의 올해 대졸 신규 인력 채용 예상 인원을 집계한 결과 삼성그룹 5,500명, 현대·기아차그룹 1,000명, LG그룹 4,000명, SK그룹 1,200명 등 모두 1만1,700명 수준으로 나타났음. 삼성과 LG는 올해 채용할 인원을 이미 확정했으며 현대·기아차와 SK는 지난해 수준으로 뽑을 것으로 알려졌다.
EU 재무장관회담, 부가세 인하 합의	유럽연합(EU)의 재무장관들이 오랜 시간 논쟁을 벌여왔던 부가가치세(VAT) 세율 인하에 합의했다고 신화통신이 11일 보도. 27개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10일 브뤼셀에서 열린 정례 회담에서 각국 정부가 서비스업종에 한해 현행 15%로 제한돼 있는 VAT 최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합의.

제목	주요 내용
도요타 美 납품사 20~30곳 자금고갈 우려	일본 도요타가 美 납품사들의 자금고갈에 대한 우려를 미국 자동차 테스크포스에게 전달했다고 11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 짐 렌츠 도요차 미국판매담당 사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오바마 대통령 직속 자동차 테스크포스(TF)를 만나 "부품조달 문제가 실질적으로 도요타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언급.
골드만 "엔 약세...3개월내 엔/달러 105엔"	골드만삭스가 엔화의 달러 대비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 보도. 골드만삭스는 일본 경제가 올해 6.1% 침체되면서 엔화가 평가 절하돼, 엔/달러 환율이 3개월내에 105엔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